

#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4

## 로마서 1: 18-32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로마서 1:18-32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복음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읽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로 어떻게 표현되니까? 그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진리를 억압함으로써 행한 일이며, 이는 23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는 변명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할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부패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연에 갖고 있는 진실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16절, 17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라.

진노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은 일종의 완곡한 표현이나 완곡한 표현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내 생각엔 누가복음 15장 20절 부근에서 하늘과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글쎄, 구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진리를 불의하게 억압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25절은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들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 19절부터 23절까지 그것을 억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무지로 인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이 더 잘 알아야 할 창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부 이교도 지식인들은 창조물이 최고의 신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대개 우상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고 부적절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더 넓은 문맥에서 이 자료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더 큰 주장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방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24절과 25절에서 볼 수 있는 성적 악행, 특히 26절과 27절에서 볼 수 있는 동성애 성행위를 특징적으로 이방인의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9-31절에서 이러한 이방인의 죄를 더 보편적인 죄로 재빨리 바꾸면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이방인의 죄를 짓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역시 정죄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에서 그 부분을 언급할 것이며, 3장 9절과 19절, 20절에서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전략은 수사학적으로 아모스 1장과 2장, 특히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8절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모압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이교도들에 대한 심판을 외칩니다. 그리고 여기 아모스가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는 유대식 액센트나 유다식 액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택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죄악을 심판하리라. 아마도 그 시점에서 박수가 잦아들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도 비슷한

전략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 앞 부분에서도 그런 종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미묘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장 21절과 같이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편 94:11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글썄요, 그게 누구에 관한 것이었나요?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시편 106편 20절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또한 예레미야 2장과 11절, 그리고 아마도 신명기 4:16-18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언어입니다. 아마도 도덕적 경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11장 7절과 25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4절의 그들의 죄에 넘겨지는 것은 시편 81편과 12절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정죄하는 구약의 언어.

따라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미 그가 이 더 큰 논쟁을 통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늘에서 진노가 임합니다. 나는 그것이 완곡한 표현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장 5절과 8절에서 그는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래의 일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9장 22절에서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그릇들, 그는 그들이 파멸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의인들을 위해 전개되어야 하므로 역사를 전개하도록 두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미래의 진노, 특히 현재의 진노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계시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들 자신의 죄악의 결과에 넘겨주시는 것을 통해 말입니다.

그는 1장 24절, 1장 26절, 1장 28절에서 넘겨준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의 진리를 억압하는 그들의 불의 사이의 대조를 봅니다. 매우 세심하게 구성된 텍스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의 구원받는 믿음은 거짓이 아닌 진리를 포함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을 추측이나 희망사항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점점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과 대조되는 진정한 진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당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개종하기 전 무신론자였을 때, 나는 무신론이 내가 존경하는 집단에서 더 존경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아마도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으로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나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확률을 2%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로 그것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실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믿을까요? 그리고 결국 나는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성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정한 타당성 구조, 즉 우리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문화적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문화의 틀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 하나님이 계시하신 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왜 당신이 만든 것을 당신을 만든 것처럼 숭배하겠습니까? 지식은 시험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낳습니다.

지식은 책임을 낳습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참된 지식이 올바른 삶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식은 단지 당신의 도덕적 책임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20절). 그리고 그는 또한 2:1과 2:15에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조금밖에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부패시키거나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소식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그는 복음 외에 심판의 나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멸망할 만큼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20. 그러나 성경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과 양심만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멸망하고 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2:14-18). 그러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가 있고,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특히 진실을 알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그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자연 속의 지식.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1:19).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바탕으로 한 내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창조물을 제공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뿐만 아니라 자비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능력과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우상이나 인간의 관념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20절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방 지식인들은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아니라도 바울의 주장을 평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실제로 자연의 설계를 믿지 않았으며 자연의 특정 사물이 신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그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와 로마 지식인들은 자연의 신성한 설계를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원래 기독교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나온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물을 보고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태계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이나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대안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철학자들은 최고의 신이 그의 작품에 존재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범신론적으로 만들었지만 때로는 단지 "창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의 설계로부터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돌보셨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이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옳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 뒤에는 한 명의 신성한 설계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픽테토스는 1세기 말경의 금욕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대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사물의 구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디자이너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만들어진 모든 사물의 구조 자체를 통해 우리는 그 작품이 확실히 어떤 제작자, 어떤 디자이너의 산물이며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연의 사실을 관찰하면서도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인간, 특히 가장 복잡한 지성은 특히 고대 사상의 설계자를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키케로(Cicero)와 서기 1세기의 세네카(Seneca)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인간, 특히 인간의 지성은 디자인을 떠나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세계의 유대인 사상가들은 바울 이전 몇 세기 동안 그러한 사상을 순수한 유일신교에 적용하여 그의 선교 사업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유대인 지식인들은 그러한 추론이 창세기에서 이미 명백했던 것을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입증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오늘날 우리는 유일신교를 한 신이나 그 이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나 소진화 등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고 당신이 우수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저를 더 낮고, 덜 진화된 존재로, 신학교 회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주가 설계되었다고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점에서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요점은 오늘날의 우리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데는 어떤 식으로든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Paul에게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해석하는 모든 틀이 똑같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잠 1:7).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주의하게 다루어진 지식은 어리석음으로 이어진다.

잠언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여기 로마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었으나(1:2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절하고 그의 영광과 형상을 이 땅에 있는 죽을 피조물의 영광과 형상으로 바꾸었으므로(1:23)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패시켰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창 1:26, 1:27).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잃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좇지 아니하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미친 데에 내버려두사 그들을 벌하셨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느니라(롬 1:21, 22).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인간악의 정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인간처럼 보이는 신을 가진 그리스인들조차 여기에 언급된 이집트의 동물 형상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동물 이미지와 인간 이미지를 모두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성적인 죄로 이어집니다. 글쎄요, 당신이 살고 있는 문화에 따라, 제가 관찰한 바로는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성적인 죄를 바울만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이것을 근본적인 죄로 많이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죄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몸, 즉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대에도 성적인 죄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대받는 성생활의 기만성에 대해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상 숭배(1:19-23)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1:25에서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을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몸을 성적으로 더럽히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1:24). 26절과 27절에서 그는 동성간의 성관계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사물을 창조하신 방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1장 20절 등에서 이야기한 것은 창조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의 원시시대인 1:20을 호소한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다른 형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왜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왜곡한 후에 그들 자신도 그것을 왜곡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성과 여성의 상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특히 출산을 위해 디자인된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1장 26절과 1장 27절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5장 2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6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자연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에 어긋나는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회적으로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단지 그 구절을 설명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스스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Jewett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갖는 신체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 생각에 그것은 문맥상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분 19초와 1분 24초를 보면 그 지점에서 8.23과 대조를 이룰 수 있다. 음,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에서 부도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부도덕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절도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신들의 사자였던 헤르메스에 관한 초기 이야기 중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태어나자마자 버릇없는 아이 같더라고요. 그는 밖으로 나가서 소 몇 마리를 훔쳤지만 누군가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소들을 훔쳤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나가서 변장하고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면서 그는 그 소를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그래, 그쪽으로 갔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절도와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헤르메스의 아내 아프로디테는 늘 전쟁의 신 아레스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소녀들을 강간하고 헤라는 복수를 합니다. 그녀는 제우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하나요? 그녀는 실제로 잘못이 없는 소녀들을 처벌합니다. 그들은 결백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도 가니메데 같은 소년들을 강간하고 있어요.

에는 제우스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자신이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라는 복수를 하고 제우스가 그녀를 산채로 태워 태워 없애도록 계락을 씁니다. 세멜레의 이야기.

글쎄요, 일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신화에 다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신이 여성을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미덕과 짝을 이루는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변증가들은 그러한 신화를 그러한 신화에 의해 지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 남성의 생활 방식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변증가들은 종종 이러한 신화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때때로 그것을 봅니다.

고대의 동성애 활동에 대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리스인들로부터 퍼져나갔지만 이 시기에는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동성애자라기보다는 양성애자였습니다. 소년들을 4등분하거나 성추행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일이 갈리아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에서 보고되었으며, 특히 내시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세계에서 지배적인 문화적 영향은 그리스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심지어 신들에게까지 귀속되었습니다. 나는 제우스가 가니메데를 강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그리스의 영향이 있었는데, 특히 초기에는 그 영향이 그리스였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로마에서 일찍부터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 문화를 더 많은 방식으로 평가한 귀족의 경우 그리스의 영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종종 그것을 그리스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다른 것들은 그리스 영향, 부드러움, 사치 등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위의 문제였습니다. 진짜 남자는 성관계 중에 밑에 있는 여성스러운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경우, 지위가 높은 사람은 노예와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같은 사회 계층의 누군가와 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stuprem 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대다수의 그리스어 사용자들에게 그리스어로 편지를 썼으며, 그들은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는 실제로 동성애 매춘부뿐만 아니라 이성애 매춘부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견해는 일부 전통적인 로마 가치에 호소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며 적어도 이에 대한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견해는 궁극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 메시지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받아들인 유대인과 구약의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것을 특히 매력적으로 만든 몇 가지 사회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남성과의 성적 출구.

원치 않는 아기들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습니다. 아마도 여자 아기가 남자 아기보다 더 자주 버려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대로부터 한 남자가 그의 아내에게 집으로 좋은 편지를 쓰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나는 지금 거기 없지만 임신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아이라면 그대로 두세요.

여자라면 버리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건 단지 한 글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자 아기들이 더 많이 버려졌다면 그리스 인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가들은 그리스 인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심각한 증거는 이집트인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과 유대인은 아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종종 쓰레기 더미에서 그것들을 줍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자녀로 키울 수도 있었지만 로마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때로는 노예로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문서인 파피루스에는 인구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그리스 노움이나 그리스 마을, 이집트의 농업 지역 타운 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구에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가 남성입니다., 모든 여성에 두 명의 남성 등이 있는데, 음,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아마도 그 여자 아기들이 쫓겨났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낙태를 했지만, 자궁 속의 아기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기를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글썄, 여자 아기는 더 자주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아기들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독수리나 개에게 먹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당신의 사회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전도하려는 사회도 상당히 부도덕한 사회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아를 내쫓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후세기에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그와 다른 많은 끔찍한 일들이 억압되었습니다. 비록 후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버리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수리나 개에게 잡아먹히는 대신에 그들은 길러지지만 대부분은 노예로 사용됩니다. 소아시아의 일부는 로마로 수출되었고, 아기들은 노예로 길러졌습니다.

남자 노예들은 노동에 사용되었습니다. 여성 노예들은 매춘부로 이용되었습니다. 종종 그들은 선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했고, 그런 다음 선술집과 자주 가던 여관에서 매춘부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자들은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혼 연령의 측면에서도 봅니다. 그리스 남자들은 대개 30세쯤에 결혼했고, 종종 자신보다 12살 어린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보다 더 젊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들보다 약 12살 정도 더 젊습니다.

그들은 종종 아내를 자녀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즉 남성 인구가 30세쯤 되어 인구가 충분히 줄어들기 전에 그들은 다른 성적 출구를 가졌습니다. 노예를 살 여유가 있는 계급이라면 노예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매춘부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 매춘부인 노예 매춘부도 돈을 내고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고급 매춘부인 헤테로이도 큰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보라색 옷을 입었고, 전통적인 아테네 문화에서 그들은 공공 장소에서 가장 자유로운 여성이었고, 전통적인 아테네,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성의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나 매춘부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서로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것은 소년들과 초기 청소년들에게도 남색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젊은 남성의 아름다움을 공개적으로 존경했으며, 사춘기와 얼굴 털, 즉 여성처럼 보이지 않게 되면 아름다움이 쇠퇴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노예 소유주들은 머리카락을 뽑거나 더 나쁘게는 소년들을 내시로 만들어서 소년들이 남성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여 그들이 남성으로서 성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대 때까지 동성애 애정의 대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사춘기를 거쳐 남자가 된 이후의 일이다. 알키비아데스, 알키비아데스와 같은 일부 청년들은 훨씬 나중에 잘생겼다고 여겨졌고 훨씬 나중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동성애 관계는 완전히 성숙한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동성애 관심의 주된 형태는 사춘기 전과 청소년 남성에게 대한 남성의 관심이었습니다.

성차별에 비해 파트너의 불평등한 지위였다. 지배적인 파트너는 성관계 행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예의와 탐색.

남자들은 소년들에게 선물과 이자로 구애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아버지는 딸과 함께든 아들과 함께든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골적인 유혹이나 강간과 같은 과잉 행위만이 착취적이고 처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보다 가벼운 유혹 행위도 종종 용인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분노가 존재했을 때 그러한 분노는 자유로운 소년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귀족 로마인들도 연회에서 노예 소년들과 노예 소녀들을 포함하여 노예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그러한 소년들이 소위 나약한 상태로 남아 있기를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인, 나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는 조롱되었지만 나약하게 만들어진 노예에게는 그렇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로 그들이 나약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남성성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되는 내시 및 기타 사람들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내시는 특히 일부 외국 법원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지중해 세계에서는 조롱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성 매춘부, 포주는 대중의 향의

없이 이 역할을 위해 노예를 착취할 수 있습니다. 자유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무례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이용당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교사, 정복자, 황제는 모두 소년은 물론 가능한 경우 젊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성애 행위나 그 일부를 비난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지 개인적인 취향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글쎄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일부 로마인들은 특히 동성애 행위를 여성적 파트너, 낮은 지위의 파트너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남자답지 않거나 비로마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적 위치에 있는 사람, 즉 그들이 여성적 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많은 로마 철학자들은 소년을 추구하는 것을 폭식이나 술 취함과 같은 과잉과 연관시켰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것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그것이 자연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문화적 수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거나 로마의 관습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애 애정이 철학적 이해보다는 동물적 열정에 의해 주도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성애 애정보다 더 낫다고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간의 성관계만이 동물적인 열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문 성교가 흔했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때때로 다른 남성들에게서 이 단어를 배운 후 여성, 아마도 매춘부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일부 포르노 꽃병 그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는 결혼 이후에도 성적 행동이 너무 흔해서 포르노를 공개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은, 특정 여관에 매춘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에서 우리는 폼페이 벽에 그들의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에 대해 이야기하면 문화의 기준에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이 제공됩니다. 당신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모두 꽃병 그림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데모스테네스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에 따르면 실제로 데모스테네스가 저술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기적인 매춘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고급 매춘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적법한 자녀를 낳을 목적으로 아내가 있습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 고대 유대인 자료에서 그들은 만장일치로 동성애 행위를 거부합니다.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Philo에서 그것을 몇 번 발견했습니다. 요세푸스에게서 두 사람 모두 1세기에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유대인, 아마도 유대인 작품인 Pseudo-Philo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작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납달리의 성서입니다. 그것은 소돔의 죄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구약성경에서는 동성애 집단강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이성애 집단 강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니, 사실 그 경우라면 어쨌든 동성애 집단강간이겠죠. 그런데 저는 창세기 19장이 아니라 사사기 19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는 단순히 환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윤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방치하는 등 소돔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것의 동성애적 성격이 또한 그것의 죄성에 대한 고려였음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소돔과 연관시켰고 동성애 행위, 특히 이방인과 연관시켰습니다. 유대인 소식통에서는 유대인 간음자, 존, 살인자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유대인 동성애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문화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사회화가 성적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났음에 틀림없지만, 유대 자료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이는 유대 문화에서보다 기독교화 이전의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이 일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만든 문화적 성향이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와 바울의 견해입니다. 바울은 자연에 반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스토아학파처럼 그도 자연의 질서에 호소했고 때로는 로마 스토아학파도 이것을 동성애 행위에 적용했습니다. 다른 유대인 작가들도 이 주제에 대해 이러한 호소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자연에 위배됩니다.

글쎄, 그들은 현대 유전학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기관이 어디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언어는 창조에 관한 문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조의 남성과 여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합창단에게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한 이방인의 죄 또는 완전한 이방인의 죄로 간주되었던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정죄할 때쯤이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죄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바울의 주장을 제한하기 위해 고대 문화를 이용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장 중 하나는 바울이 남색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남색은 그리스 동성애 성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그것이 남색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는 레즈비언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남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바울의 주장은 특히 그의 특정 언어를 고려할 때 단지 그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될 때만 그렇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리스 세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나 다른 문화에 대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세계에서는 두 문화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동성애 행위. 바울은 신학적 연관성을 제시하지만 이는 단지 문화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학자는 에녹 신화의 반향을 주장했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죄일 뿐입니다.

에녹 이야기에는 많은 죄가 있었고 바울은 에녹과는 다른 타락 모델을 호소했습니다. 다시 그는 창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시대에도 동성결혼이 있었나요? 그것은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아니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나이 많은 남자친구인 티젤리누스(Tigellinus)와 성관계를 가졌고, 포페아 사비나(Poppea Sabina)와 결혼하고 악타이아(Actaea)를 갖는 것 외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노예 소녀가 스포러스(Sporus)와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결혼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를 놀리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고대에 발견한 것 중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매우 사악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남자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것은 후기 랍비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에 동성결혼이 실제로 존재했고 아마도 네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결혼으로 이해했다는 직접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스포러스는 노예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결혼은 적법한 상속자를 낳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결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남색에만 반대했습니까? 지배적인 관행만이 유일한 관행은 아니었습니다.

pederast라는 단어는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의미한 전부라면, 그는 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성 동성애 행위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행위도 명시하고 있으며, Paul은 동성 행위의 요소를 명시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요점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 행위를 이방인의 죄의 원형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28-32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3:23). 우리 모두는 의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어겼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이 선포하는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회원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회중의 성원들은 분명히 고린도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계층이 아니라 행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유혹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목회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학대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히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그가 의도한 대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이것이 사회와 대부분의 교회에서 논란이 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는 당시 메트로폴리탄 공동체 교회를 제외하고 동성애적 성관계가 허용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을 위해. 그 당시 제가 목사였고 이것이 사회나 우리 사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때, 제 교회에는 유혹의 영역으로 볼 때 동성애자인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의 유혹의 영역은 이성애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들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근거로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저항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경건한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신이 유혹에 시달려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매주 밖에 나가서 다른 게이 남성들과 무방비 상태로 동성애 성관계를 갖고 있었고 자신이 HIV 양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켜 그들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설정을 주고 모든 죄를 정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자였을 때, 실제로 교회 권징을 실천할 뻔한 적이 한 번은 중상 모략이라는 죄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행위를 징계하고 싶지만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적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표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민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단지 누군가의 유혹 영역이라면, 우리는 이성애자 유혹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1장 22절. 바울은 우상 숭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적 부도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죄의 광기가 그 자체로 형벌이 되는 이 장의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끈다.

철학자들은 이성과 열정을 대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래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25에서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합리적인 욕망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철학자들이 비합리적인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 없이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탈수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특정 신체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통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강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의 정욕을 통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때때로 수업 시간에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룬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문제입니다. 제가 매우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수업에서 누군가가 "그건 불공평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유혹이 이성애자라면 적어도 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학급의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고 결혼할 수 없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민족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2:1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대처하기 더 어려운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공감하고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혹이 무엇이든 계시록과 같이 버가모와 두아디라를 제외한 일곱 교회는 모두 각기 다른 시험을 이겨내야 했지만 모두가 이겨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경우이고 우리는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죄의 광기는 그 자체로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합리적인 욕망에 내버려두셨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도덕적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1장 24절에서 이성간의 성관계를 포함하는 정욕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26절과 27절에서는 정욕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철학자들이 부적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정욕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욕의 노예가 되어 그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붙잡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평가에 실패한 마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옳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내가 대격을 사용한다면, 신은 그것들을 아다카마스의 마음인 아다카만(adakaman)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평가에 실패한 마음. 그들은 어떤 행동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32절에서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어쨌든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진정한 이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정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머리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진리를 통해 이성을 사용하도록 의도하신 방식으로 이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8절부터 32절까지는 다양한 악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이방인의 죄로 간주되었던 이러한 것들을 요약한 후, 계속해서 이방인의 죄만이 아닌 거의 모든 사람의 특징이 되는 죄를 언급합니다.

24절, 26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졌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8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이 육신, 육신의 생각에 대한 관점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말할 때 볼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높은 것이 없고 영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키마조에게서 나온 것이라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승인되지 않은 도키마조의 마음에 맡겨



부적합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모든 종류의 악덕으로 이어집니다. 악덕 목록. 바울은 타락하거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적합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악덕 목록은 고대 도덕가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요점을 수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배열되기도 했습니다. Paul의 목록은 평균보다 길지만 결코 가장 길지는 않습니다.

구약성서에도 악덕 목록이 있는데, 특히 그리스 문학에 그렇습니다. 유대 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 of Alexandria)는 100개 항목이 넘는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aul의 길이는 평균보다 길지만 결코 가장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점을 이해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사학적 반복과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9절, 인류는 네 가지 기본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29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다섯 가지 죄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는 여덟 종류의 죄인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들에게는 네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부족합니다. 말로는 옳다, 그들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옳다 여기지 아니하느니라(28절).

그러나 이제 32절에서는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악덕 목록의 기능. 인류는 당연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1:32절에서 말합니다. 음, 그것이 우리가 5:12부터 21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소개했습니다. 6.23 죄의 삶은 사망 이니라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그는 말하지만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었습니다.

1:19, 20 또한 2:14, 15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율법을 새긴 것이 충분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여,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고, 양심을 가질 만큼 충분합니다. 적어도 그 안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나 요구에 대해 유대인들은 '아, 이 우상 숭배자들, 성적 부도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하나님의 디카이오마, 그의 의로운 요구는 우리 모두에게 사형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죄이기도 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과 교만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 등이니라. 나는 그 중 대부분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꽤 자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더 논증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과 23장 327절에는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고 여기서 이 논증을 귀납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목록의 어딘가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경을 사용하여 3.9부터 19까지 연역적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2장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의 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이교도들에 대한 심판과 오 이스라엘아, 너에게도 심판이 있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아, 당신은 정말 엉망이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논증하듯이,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 곧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값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로마서 1:18-32입니다.